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Marital Violence

부산대학교 아동·소비자·주거학과

교수 김득성

효성카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교수 김정옥

고신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송정아

Dept. of Child · Consumer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Prof. : Kim, Deuk-sung

Dept. of Life Environment, Catholic Univ. of Taegu Hyosung.

Prof. : Kim, Jung-ok

Dept. of Family Welfare, Kosin Univ.

Prof. : Song, Jung-ah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arital violenc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A total of 352 marital couples in Pusan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Husbands and wives reciprocally inflicted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physical violence. But husbands were more to inflict sexual violence and injury toward their wives.

2. When husbands have more the distractor and the blamer of communication style,

* 본 연구는 1998년도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일부 지원에 의한 연구임

they inflicted more physical violence toward their wives. When wives have more the blamer of communication style, they inflicted more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their husbands.

3. Husbands inflicted psychological aggression toward their wives when husbands experienced child abuse from their parents. Husbands inflicted physical violence toward their wives when husbands have the distractor of communication style, experienced witness of spousal violence between father and mother and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Wives inflicted psychological aggression toward their husbands when wives experienced witness of spousal violence between father and mother and have the blamer of communication style. Wives inflicted physical violence toward their husbands when wives experienced child abuse from their parents.

I. 연구의 필요성

폭력은 인간의 문명사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가정폭력은 가족의 폐쇄성과 같은 구조의 고유특성으로 인해 마치 결혼이 폭력면허증을 얻는 것처럼 그 실상이 은폐되거나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인권 옹호의 측면에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초기에는 주로 일부 의학계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대의 심각성을 여론화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그 동안의 노력을 집결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가정폭력은 하류계층이나 정신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가족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1997년 부산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를 보면 성폭력을 포함한 구타 및 가정폭력이 45%로 나타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국민일보, 1998, 12. 28)에 의하면 1998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은 총 386건이

있고, 가족에 대한 폭력이 9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중에서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법원은 가정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행위 제한(30.4%)’을 가장 많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병리적인 사람이나 특정 세대에 집중된 현상이 아니라 아동·성인·노인에 이르는 가족내 전 생애(life-span)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입에 있어서도 가족 전체의 참여와 재통합의 과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 원인과 형태가 어떠한 피해자에게 건전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방해하며 폭력의 빈도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및 존속살인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폭력의 결과 학대받은 사람들은 타박상에서부터 골절상, 이 부러짐, 고막파열, 질식 및 사망에 이르는 신체적인 손상과 언어상실, 낮은 자아존중감과 무가치함, 불안, 우울증과 무력감, 죄의식과 자책감, 정신신체질환 등의 문제로 심한 후유증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망의 결여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데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는 무기력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여성개발원, 1993). 이와 같이 심리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손상은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혼관계나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의 위기를 경험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

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은 그 실효성을 놓고 볼 때 폭력 발생 후의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해냄으로써 폭력을 예방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격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등 유전적·심리적·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폭력을 고립된 행동으로 간주해 왔을 뿐 관계 내의 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의사소통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다루지는 않았다. 종래의 연구들은 폭력 행위 자체만을 문제시하기 때문에 관계의 전체적 맥락에서 폭력을 보다 확대된 인간 상호작용과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사소통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은 메시지를 보내는 측의 의도나 목적 또는 메시지를 받는 측의 해석이나 반응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부정적 결과이다. 부부폭력은 폭력행위 그 자체만으로 분리되거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다(Infante, Chandler & Rudd, 1989).

그러나 종래의 부부폭력에 관한 연구는 아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거나 한 쌍이 아닌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한 쌍의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여 부부간 상호역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부부폭력의 현황을 밝히고,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관점은 확대적인 가족관계로 정형화될 수 있는 가족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규명할 수 있고, 나아가 일치형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대화 기술개발에 도움을 줌으로써 부부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부폭력과 의사소통 유형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간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부모간 폭력 목격, 아동기 학대 경험, 학교폭력 경험,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정의

지금까지의 폭력에 대한 정의들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 관점에서 폭력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정의에 의한 폭력행동에 비록 가해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인식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가능하며, 이 때의 목적은 크게 세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이 문제해결이나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목적과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려는 관계 목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지기를 위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정체성 목적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메시지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위의 세 가지 목적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Benoit & Chan, 1994).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의사소통 관점에서 가정폭력이란 폭력행동의 목적이 문제해결이나 과제수행을 위한 수단적 목적이거나 관계 유지·향상을 위한 관계목적 또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체성 목적이든 간에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가해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도적이었다고 인지하는 경우도 포함시킨다.

2. 의사소통 유형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가족간 상호역동에서 적절하

지 않은 역기능적 대처방법의 문제이다(Satir, 1978). Satir는 임상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공통적인 방법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는 대처방법이다. Satir가 개발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및 산만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정아·최규련, 1997).

회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상황을 존중하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나 진정한 감정을 무시한다. 자기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며 다른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거의 수용하고 들어준다. 회유형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나는 가치가 없다. 힘이 없다" 등.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어떤 문제이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자신 때문이며 문제의 비난을 자신이 떠맡고자 한다

비난형은 회유형과 정반대 유형이다. 비난형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하며 자신과 상황에만 가치를 둔다. 때문에 그들은 적의를 가지고 잔소리하는 난폭한 폭군으로 진술되기도 한다. 자기 자신은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며 감정은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다. 주기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심히 미분화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극히 낮은 자아존중감이 내면에 깔려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약점을 수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 실패자라는 패배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더 중요한 위치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초이성형의 특성은 비인간적인 객관성과 논리성의 소유자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부하며 어떤 감정도 내보이지 않고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이며 냉정하고 차분하며 침착하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선택한다. 행동은 권위주의적이며 항상 논리적이고 옳아야 하며 경직되어 있고 강박적이다. 인정이 없고 융통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강한 자존심과 지나친 책임감으로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처받기 쉽고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다.

산만형의 특성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토론하고 있는 주제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한다. 생각이나 주제를 자주 바꾸고 어떤 특정한 주제에 주의집중을 하지 못한다. 산만형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상황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제와 관계없는 말, 일관성이 없는 말, 뜻이 통하지 않는 요점이 없는 말을 나열하며 어느 누구도 나에겐 상관없이 없고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난처할 때 농담하고 떠전을 피우며 회설수설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3. 의사소통 관점에서의 폭력

위협이나 처벌과 같은 강압적 의사소통은 폭력을 유발하는 촉매역할을 하며, 이러한 경우 체면 손상, 상대방에 대한 통제 욕구, 폭력의 잠재성 및 분노 등이 폭력유발 경로에 대한 촉매작용을 한다. 이들 네 가지 촉매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면 손상

상대방의 정체성을 공격할 때 상대방은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복을 하게 된다. 만일 남편이 아내로부터 거슬리는 자극을 받았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손상을 주고 싶어하고 벌을 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Ptacek, 1988). 따라서 상대방의 언어적 공격에 대해 모욕하거나 자신의 지배적 영향력을 확인시키거나 또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처하거나 사과하기를 강요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의 공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복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반면에 애정·유머·요청 및 설득을 사용하여 강압적 의사소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면 폭력과 같은 공격적 보복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Power, McGrath, Hughes 및 Manire(1994)는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부모가 위협하는 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없지만 통제를 완화하려는 표현, 즉 통제요청의 범위 줄이기, 요청을 정당화하기,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동질성 공유 등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언어적 공격이 상처받기 쉬운 부분을 공격할 때 폭력을 유발할 촉매작용은 더 크다. 예를들면 남편의 65%는 만일 아내가 자신이 성적으로 병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때릴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Briere, 1987). 그리고 Harris(199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에 손상을 주는 언어적 공격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집쟁이' 여학생은 '문란하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사적 장소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을 때 폭력으로 대응하기 쉬우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공개적 공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체면 손상을 당한 사람이 감정적인 자제력을 가지고 관심의 초점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자기 통제력이 있을 경우에는 체면을 손상시키는 언어적 공격이 폭력을 유발하는 촉매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2) 통제 욕구

인간은 누구나 환경을 통제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Stets, 1993). 친밀한 관계일수록 통제욕구는 더 강하며, 특히 지배적인 부모 자녀관계에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얻기 위해 통제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런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처음부터 폭력과 같은 물리적 공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장 피력, 설득 및 타협 제시 등 처음의 비 강압적 영향력이 상대방의 저항에 부딪치면 점차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변한다.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묘한 심리전법을 사용하여 또 다른 공포의 공격을 하게 된다. 즉, 공포분위기 조성, 위협, 고함지르기, 벽치기, 오랜 침묵, 망신주기 그리고 비난하기 등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위협하고 모욕을 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행하는 통제욕구에 의한 폭력은 가족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상을 파괴할 수 있으며 분노와 증오감을 갖도록 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불복종과 같은 저항은 공격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강압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의 결과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고 더 빠르다. Infante 등(1989)은 폭력적인 배우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폭력 희생자의 1/3 과 피해자의 1/4 은 폭력적인 데이트 상황의 원인으로 언어적 표현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Follingstad, 1990).

3) 폭력의 잠재성

인간의 폭력에 대한 잠재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신체적 해의 양을 뜻하며, 이때 다른 사람의 판단은 자신의 폭력 잠재성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폭력 잠재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남성들은 더 큰 체구와 더 많은 육체적 활동 및 더 많은 폭력에의 노출로 인해, 폭력 잠재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으며, 반면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자녀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또는 아내의 저항을 막기 위해 행사한 폭력에 대해 아내가 굴복한다면 폭력행동은 더 강화되고, 미래의 갈등상황에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잠재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대가 자신의 폭력 잠재성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평을 유보하거나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 둘째, 폭력 잠재성을 실제 행동으로 행사하려는 의지가 상대방의 강압적 폭력 잠재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상대방의 강한 물리적 대응, 관계를 끝내겠다는 단호한 태도, 경찰을 부를 가능성,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가족이나 친구에게 낙인찍힐 가능성은 폭력 잠재성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감소시킨다(Lackey & Williams, 1995). 셋

째, 사회규범에 의해 폭력 잠재성은 제한된다. 자신보다 약자를 때리는 것이 수치이며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평가받는 사회규범 하에서는 남성은 여성에게 폭력사용을 자제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남편이 여성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 지배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아내를 구타하는 빈도가 높다.

4) 분노

분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상대방과의 언어적 논쟁에서 불일치하거나 저항하는 반응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통제할 수 없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는 기능장애와 폭력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된다.

Burman, Margolin 및 John(1993)에 의하면 부부들은 대부분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분노나 경멸을 경험하지만 폭력부부의 경우 분노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Mason과 Blankenship(1987)은 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 표현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노가 폭력의 촉매작용을 하나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촉매제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강압적 의사소통이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촉매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들 중 어느 한 요인만으로 촉매효과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촉매경로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단순히 폭력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는 촉매효과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갈등상황 중에 일어나는 의사소통 변수를 충분히 조사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재연하게 하거나 이전의 갈등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거나, 일기나 갈등상황을 촬영한 녹화 테이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할 때 공격적인 의사소통 상황의 예측요인을 찾아낼 수 있고 나아가 폭력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4. 근원가족에서의 폭력 경험

가정폭력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학습에 의해 일어난다(Scott, 1974; Straus, 1978; Walker, 1978; Hilberman, 1980). 환경에 의한 사회 심리적 학습으로 가족내의 세대간에 폭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으면 고통과 갈등에 의한 심리적 결함을 가져오고 성장 후 또 다른 가정폭력자가 된다는 순환원리이다.

남자 아동은 어릴 때는 어머니의 무력함을 동정하고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소년기를 거치면서 아버지의 공격적인 행동을 동일시하여 어머니의 희생을 비난하고 아버지가 사용했던 말과 공격적인 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에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왕따)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청년기에는 데이팅 폭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성장한 후에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 또는 희생자의 세대간 전이로 나타나고 있다(Douglas, 1991).

많은 연구자들(형사정책연구원, 1998; Scott, 1974; Straus, 1978; Walker, 1978; Hilberman, 1980)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가정폭력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폭력의 대물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붕괴와 함께 사회폭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가정폭력과 자아존중감

김광일과 문경서(1994)는 남편의 구타빈도가 많을수록, 구타정도가 심할수록, 구타기간이 길수록 아내의 자아존중감은 낮고, 자아기능도 많은 손상을 입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은 자녀들에게 낮은 자아존중감과 무력감을 가지게 하여 자아기능에 많은 손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무기력이 심하며, 자아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낮은 자아존중감

로 인한 수동적 태도이다. 자신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남편의 구타를 받은 아내들의 정신적·심리적 상황의 특징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무기력, 부정적 자아상, 절망상태 등 이었다(김광일, 1985; 박재신, 1992; Ball & Wyman, 1978; Hilbermann, 1980; Martin, 1981; Walker, 1978). 이러한 심리적·정신적 노예화 과정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Walker(1979)는 구타하는 남편 역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사소한 일에 감정폭발이 잘되고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이중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수 (%)			
변인	구 분	남편	아내	변인	구 분		
연령	30~40세 미만	40(25)	68(43)	수입	50만원 미만	16 (10)	
	40~50세 미만	117(71)	90(54)		50~100만원 미만	35 (23)	
	50~60세 이상	6(2)	2(1)		100~150만원 미만	34 (22)	
직업	무직, 주부	4 (4)	85(56)		150~200만원 미만	19 (12)	
	임시고용, 노무직	3 (3)	5 (3)		200~250만원 미만	17 (11)	
	판매/서비스직	1 (1)	7 (5)		250~300만원 미만	11 (7)	
	숙련,기능/생산직	15(17)	5 (3)		300~400만원 미만	13 (9)	
	소규모 자영업	22(24)	15(10)		400 이상	7 (5)	
	일반 사무직	24(27)	11 (7)		가족 형태	핵가족	137(85)
	일반 전문기술직	18(20)	23(15)			확대가족	19(12)
	고위 전문직	2 (2)	1 (1)	편부모 가족		2(1)	
기타	2 (2)	1 (1)	계부모 가족	3(2)			
교육 수준	초등졸 이하	2 (2)	2 (1)	결혼 상태	초혼	157 (98)	
	중졸	5 (4)	21(14)		재혼	3 (2)	
	고졸	54(40)	68(45)				
	대졸	62(46)	53(35)				
	대학원졸	13(10)	8 (5)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시내 중학교 학생의 부모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5개 중학교에서 8개 학급을 대상으로 300명(600부)의 부모를 조사하였다. 부모들이 서로 의논하지 말고 응답하도록 부탁하였으며, 학생들을 통해서 회수하게 되므로 부모가 응답한 질문지를 동봉한 봉투에 각자 넣어 봉하고 이를 다시 큰 봉투에 넣어서 학생 편에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총 216쌍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한 쌍이 아닌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76쌍(352명)의 부부였다.

조사대상자의 가계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10%,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23%, 100~150만원 미만이 22%, 150~200만원미만이 12%, 200~250만원 미만이 11%, 250만원~300만원이 7%, 300~400만원이 9%, 400만원 이상이 5% 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2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규모 자영업 24%, 일반 전문기술직 20% 순이었다. 아내는 전업주부가 56%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 일반전문직이 15%, 소규모 자영업 10% 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초등졸이 2%, 중졸이 4%, 고졸이 40%, 대졸이 46%, 대학원졸이 10% 이었다. 아내의 경우 초등졸이 1%, 중졸이 14%, 고졸이 45%, 대졸이 35%, 대학원졸이 5% 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간 계층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42세, 아내가 39세이었다. 결혼 상태는 초혼의 경우가 98% 이었다. 가족생활주기상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확대기 가족에 해당된다.

3. 측정 도구

1) 부부폭력 척도

Straus(1996)는 갈등이론에 기초하여 가정폭력을 측정하는 CTS I 을 보완하여 78문항으로 구성된 CTS II 를 개발하였다. CTS II 는 협상,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상해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공격은 CTS I 의 언어적 공격이 이름이 바뀐 것으로 비언어적 공격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폭력 척도는 Straus(1996)의 Conflict Tactics Scale II 를 김예정·김득성(1999)이 번안한 것이다. CTS II 척도의 문항들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가한 폭력(가해)과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한 폭력(피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을 제외한 4개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심리적 공격은 가해와 피해 각각 8문항, 신체적 폭력은 가해와 피해 각각 12문항, 성적 폭력은 가해와 피해 각각 6문항, 상해는 가해와 피해 각각 6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전혀 없음(0), 1년 전에 발생(1), 1년에 1번(2), 1년에 2번(3), 1년에 3-5번(4), 1년에 6-10번(5), 1년에 11-20번(6), 1년에 20번 이상(7)의 8점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에 폭력이 많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편 가해의 경우 심리적 공격 $\alpha = .85$, 신체적 폭력 $\alpha = .89$, 성적 폭력 $\alpha = .69$, 자신의 상해는 $\alpha = .77$ 이었다. 남편 피해의 경우 심리적 공격 $\alpha = .85$, 신체적 폭력 $\alpha = .89$, 성적 폭력 $\alpha = .66$, 배우자의 상해는 $\alpha = .72$ 이었다.

아내 가해의 경우 심리적 공격 $\alpha = .77$, 신체적 폭력 $\alpha = .87$, 성적 폭력 $\alpha = .74$, 자신의 상해는 $\alpha = .84$ 이었다. 아내 피해의 경우 심리적 공격 $\alpha = .86$, 신체적 폭력 $\alpha = .92$, 성적 폭력 $\alpha = .66$, 배우자의 상해는 $\alpha = .83$ 이었다.

2) 의사소통 척도

의사소통 척도는 이상순(1998)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수정·보완하여 회유형(10문항), 비난형(10문항), 초이성형(11문항), 산만형(10문항) 및 일치형(8문항)의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2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의사소통 특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회유형 $\alpha = .67$, 비난형 $\alpha = .61$, 초이성형 $\alpha = .47$, 산만형 $\alpha = .60$, 일치형 $\alpha = .60$ 이었다.

3) 부모간 폭력 목격 척도

부모간 폭력 목격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근원가족에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을 김예정·김득성(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보지 못했다(0), 가끔 보았다(1), 자주 보았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을 많이 목격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62$ 이었다.

4) 아동기 학대 경험 척도

아동기 학대 경험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아동기 때 학대받은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김예정·김득성(1999)이 수정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해서 질문하였고, '벨트나 몽둥이'로 맞은 경험을 묻는 문항을 '회초리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었다. 응답범주는 전

혀 보지 못했다(0), 가끔 보았다(1), 자주 보았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63$ 이었다.

5) 학교폭력 경험 척도

학교폭력 경험 척도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선생님·선배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세 문항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신체적 싸움을 한 정도를 묻는 한 문항을 합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보지 못했다(0), 가끔 보았다(1), 자주 보았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

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78$ 이었다.

6)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9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이며, 부정적 문항들(3번, 5번, 10번)은 역으로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alpha = .85$ 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부부폭력과 의사소통 유형의 전반적 경향

1) 부부폭력의 전반적 경향

(1) 부부폭력 발생 경향

〈표 2〉 부부간 폭력 발생 유무

	사례수 (%)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자신의 상해 배우자의 상해
남편 가해 (N=164)				
폭력 발생	107 (65%)	76 (46%)	42 (26%)	33 (20%)
폭력 없음	57 (35%)	88 (54%)	122 (74%)	131 (80%)
남편 피해(N=164)				
폭력 발생	95 (58%)	58 (34%)	26 (16%)	38 (24%)
폭력 없음	69 (42%)	106 (66%)	138 (84%)	126 (76%)
아내 가해(N=161)				
폭력 발생	119 (72%)	69 (41%)	33 (18%)	53 (31%)
폭력 없음	42 (28%)	92 (59%)	128 (82%)	108 (69%)
아내 피해 (N=161)				
폭력 발생	107 (65%)	78 (46%)	52 (31%)	35(20%)
폭력 없음	54 (35%)	83 (54%)	109 (69%)	126 (80%)

남편의 경우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아내에게 심리적 공격을 한 비율은 전체의 65% 이었고,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 46%와 성적 폭력을 26%했으며, 자신이 아내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지각한 경우가 20% 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58%가 심리적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 34%, 성적 폭력 16%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지각한 경우는 24% 이었다.

아내의 경우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남편에게 심리적 공격을 행한 비율은 전체의 72% 이었고,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 41%와 성적 폭력을 18% 했으며,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지각한 경우가 31% 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65%가 심리적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 46%, 성적 폭력 31%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자신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지각한 경우는 20% 이었다.

(2) 부부간의 폭력 비교

해와 피해 모두 평균 2.3에서 3.5, 표준편차 5.0에서 8.3의 범위에 있어 응답범주 중 '일년에 1번'과 '일년에 2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편차가 무척 큰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폭력은 가해와 피해 모두 평균 0.6에서 1.5, 표준편차 2.0에서 3.1의 범위에 있어 응답범주 중 '전혀 없음'과 '일년 전에 발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 자신의 상해에 대한 지각은 가해와 피해 모두 평균 0.8에서 1.4, 표준편차 1.7에서 3.4의 범위에 있어 응답범주 중 '전혀 없음'과 '일년 전에 발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편차가 무척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해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행하는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상대에게 하는 폭력의 정도는 비슷하였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쪽은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면 부부가 서로 비슷한 정도의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입은 상

〈표 3〉 부부간의 폭력 비교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가해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배우자 상해
남편	162 4.5(6.2)	164 2.9(5.7)	165 0.9(2.1)	165 0.9(2.0)
아내	149 4.0(4.5)	155 2.5(5.4)	156 0.6(2.0)	156 0.9(2.6)
t값	N.S.	N.S.	N.S.	N.S.
피해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자신의 상해
남편	164 3.8(5.9)	161 2.3(5.0)	165 0.6(2.0)	163 0.8(1.7)
아내	154 4.7(6.8)	154 3.5(8.3)	156 1.5(3.1)	155 1.4(3.4)
t값	N.S.	N.S.	-2.8*	2.1*

P < .005

부부간의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와 피해에 따른 남편과 아내 폭력의 네 가지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값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네 가지 폭력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공격은 가해와 피해 모두 평균 3.8에서 4.7, 표준편차 4.5에서 6.8의 범위에 있어 응답범주 중 '일년에 3-5번'과 '일년에 6-10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가

해에 대한 지각에서도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서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당하는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도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에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서로에게 가하거나 당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에 대한 지각이 비슷하므로 부부폭력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의 경우 성적 폭력과 자신의 상해에서는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 폭력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가하는 폭력(가해)은 유사하였으나 피해를 당하는 정도는 아내가 남편에 비해 더 컸다. 또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남편보다 아내가 더 심각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부부가 함께 폭력을 행사하지만 신체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내가 피해를 더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부의 가해-피해에 대한 지각

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지각하는 때린 정도와 피해자가 지각한 폭력 경험 정도는 비슷하여 부부가 서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부폭력의 상관관계

부부폭력에서 가해와 피해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쌍방 가해의 경우 부부의 심리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남편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심리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은 성적 폭력

〈표 4〉 부부의 가해-피해 지각 차이검증

N=151

종 류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 해
남편 가해	4.5	2.8	1.0	1.0(남편이 본 아내 상해)
아내 피해	4.8	3.5	1.5	1.4(아내가 당한 상해)
t값	N.S.	N.S.	N.S.	N.S.
아내 가해	3.8	2.4	0.6	0.8(아내가 본 남편 상해)
남편 피해	4.0	2.3	0.6	0.8(남편이 당한 상해)
t값	N.S.	N.S.	N.S.	N.S.

부부가 행하는 폭력에서 자신이 상대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지각과 상대 배우자가 당한 폭력에 대한 지각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가하는 쪽보다 당하는 쪽이 더 심하게 폭력을 당했다고 지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상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각간에는 유의

파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남편 가해/아내 피해의 경우 남편이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할수록 아내는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상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할수록 아내는 심리적

〈표 5〉 부부폭력 네 가지 척도간의 상관계수

N=138

	아내 / 가해			아내 / 피해				남편 / 피해					
	심리적	신체적	성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상해		심리적	신체적	성적	상해
남편/가해				남편/가해					아내/가해				
심리적	.44**	.30**	-.02	심리적	.50**	.30**	.13	.28**	심리적	.69**	.61**	.05	.20*
신체적	.30**	.28**	.03	신체적	.58**	.61**	.23*	.56*	신체적	.47**	.54**	.09	.23*
성적	.15	.10	-.01	성적	.23**	.24*	.22*	.21*	성적	.12	.18	.21	.00

신체적 손상 및 성적 폭력뿐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내 가해/ 남편 피해의 경우는 아내가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가할수록 남편은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및 상해를 당하나 성적 폭력은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의 경우 심리적 공격은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는 것($r=.50$)보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받는 정도($r=.69$)가 더 심하였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로부터 심리적으로 더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남편보다 더 심각한 상해를 경험($r=.5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편보다 아내가 신체적 상해를 더 겪는다는 연구결과(Margolin(1992) & Bograd(1990))와 일치한다.

2)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전반적 경향

남편이 비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내에게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남편이 산만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내의 경우 비난형은 심리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아내가 비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남편에게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남편의 경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¹⁾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역기능적 의사소통-비난형·회유형·초이성형·산만형, 아동기 학대 경험, 부모간 폭력 목격, 학교폭력 경험 및 자아존중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

〈표 6〉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 차이검증

	사례수 / 평균(표준편차)				
	산만형 (10문항)	회유형 (10문항)	초이성형 (11문항)	비난형 (10문항)	일치형 (8문항)
남편	135 12.6(1.5)	142 14.7(2.4)	148 14.8(1.9)	143 13.0(1.8)	149 13.8(1.7)
아내	135 12.4(1.7)	128 14.5(2.5)	137 14.2(2.0)	132 13.0(1.7)	139 13.9(1.6)
t값	N.S.	N.S.	N.S.	N.S.	N.S.

부부 의사소통 유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부부는 비교적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산만형·회유형·초이성형 및 비난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도 부분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간의 상관

남편의 경우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은 심리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산만형은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하였다.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r=.50$ 이상의 상관이 발견되지 않아 다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심리적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기 학대 경험뿐이며, 신체적 공격에는 산만형 의사소통과 부모간 폭력 목격 및 학교폭력 경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아내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이 산만형일수록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많이 경험했수록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1)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없어서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이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영향

〈표 7〉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간의 상관계수

	남편 (N=137)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
산만형	.24	.39**	.07	.20
회유형	.06	-.08	-.13	-.07
초이성형	.14	.09	.03	-.04
비난형	.25*	.33**	.03	.02
일치형	-.04	-.12	-.05	-.08
아내 (N=135)				
산만형	-.01	.09	.03	.08
회유형	-.06	.04	-.14	.09
초이성형	-.02	-.01	.06	.09
비난형	.31**	.27*	-.09	.10
일치형	.08	-.06	-.12	-.20

났다.

한편 아내의 경우 심리적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간 폭력 목격과 비난형 의사소통이었으며, 신체적 폭력에는 아동기 학대 경험만이 영향이 있었다. 즉 아내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이 비난형일수록 남편

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아동기 학대 경험이나 부모간 폭력 목격과 같은 근원가족에서의 폭력 경험이 세대를 거쳐 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원가족에서의 폭력과 현재 부부간 폭력의 연관성은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에 의한 결과이고,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대상과의 관계가 폭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설명이든 본 결과에서는 근원가족에서의 폭력 경험은 부부간의 폭력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아내의 경우 비난형은 심리적 공격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관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아내의 비난하는 말은 남편에 대한 심리적 공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남편의 경우 산만형은 아내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산만형은 자아존중감이 낮고($r=-.50$), 주의를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특성이 강하며, 자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느낌과 심각하면 정신병리적인 특성을 수반하고 있다(송정아·최규련, 1991). 부부 갈등과

〈표 8〉 부부폭력에 대한 자신의 배경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남 편		아 내		
	독립 변인	B(β)	독립 변인	B(β)	
심리적 공격	아동기 학대	.97 (.28*)	부모간 폭력	1.2(.28**)	
	상 수	2.0	비난형	.49(.26**)	
	R ²	.08*	상 수	-8.2	
			R ²	.16**	
신체적 폭력	산만형	.59 (.34***)	아동기 학대	1.0(.32**)	
	부모간 폭력	1.3 (.34***)		상 수	.94
	학교 폭력	.57 (.19***)		R ²	.10**
	상 수	-11.8			
	R ²	.31***			

* P < .01 ** P < .005 *** P < .0001

을 미치는 변인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산만형의 남편은 적절한 대처가 힘들 것이고, 아내의 언어적 공격에 맞설만한 논리와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산만형 남편들에게는 신체적 공격이 다른 갈등해결 방법보다 이용하기 쉬운 방법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특성이 강한 집단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적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공격을 주고받으나, 아내가 성적폭력과 상해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둘째, 남편은 산만형과 비난형일수록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며, 아내는 비난형일수록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한다.

〈표 10〉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특성이 강한 집단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산만형 집단	회유형 집단	초이성형 집단	비난형 집단	전체 표본 평균
심리적 공격	5.8(6.7)	5.0 (6.5)	4.4 (5.4)	7.2 (7.2)	4.3(5.3)
신체적 폭력	6.8(7.1)	5.8 (8.3)	5.0 (4.5)	7.1 (7.8)	2.7(5.6)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각 유형의 특성이 강한 사람(평균 이상)만을 택하여 의사소통 유형 특성이 강한 집단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의 평균을 구하였다.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집단들의 심리적 공격은 전체 표본의 심리적 공격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비난형 집단은 전체 표본의 심리적 공격 평균에 비해 약 2배가 많은 심리적 공격이 발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비난하는 의사소통과 심리적 공격은 같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집단들의 신체적 폭력은 전체 표본의 신체적 폭력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약 2배에서 2.5배정도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집단은 비난형과 산만형 집단 순이었다. 부부 모두 비난형 집단에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난형과 산만형의 경우에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남편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아내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이 산만형일수록,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아내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이 비난형일수록 남편에게 심리적 공격을 많이 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을수록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폭력적인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주고받으나 아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다. 심각한 상해를 당하는 피해 여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피해 남성에 대한 배려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남편의 경우 산만형과 비난형, 아내의 경우 비난형은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반부부들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예: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Practical Applic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Skills,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Marriage Survival Kit 등)이 활성화되어 부부관계가 향상되고 그 결과 부부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근원가족에서의 폭력 경험이 결혼후의 부부간의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예: 홍인종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 상담 프로그램, Stonsy의 Compassion Workshop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진숙(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광일 (1993). 구타당하는 아내. 정신건강연구 제3호, pp. 235-256.
- 김예정 · 김득성(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2호.
- 김예정 ·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 김정옥(1988).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1호.
- _____ (1993).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인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2호.
- 김정옥 · 전형미 · 이현혜(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결함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여성문제연구 제20호.
- 김정옥 · 류도희(1997).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 정서적 학대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3호, 205-220.
- 김희선(1988). 구타당하는 아내의 한 사례연구. 김광일 편,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pp. 199-233.
- 박미은(1991). 배우자 학대와 치료. 제 12차 사회사업 워크숍 보고서.
- 박재신(1992). 가정내 폭력과 일상생활. 서울: 등불.
-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 II)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남편의 갈등 대처 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pp. 51-87.
- 송정아 · 최규련(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하우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 박사논문.
- 심영희(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 심포지움 논문집.
- 이상순(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분석- Jung과 Satir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규련(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 최규련 · 유은희 · 홍숙자 · 정혜정(1997). 가정폭력에 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개발: 배우자학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자료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6).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 한국여성개발원(1993). 한국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 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2집, 277-320.
- Ball, P. & Wyman E.(1978). Battered wives and powerlessness. *Victimology*, 2, 542-552.
- Benoit, W.L., & Cahn, D.D.(1994). A communication approach to everyday argument. In D.D. Cahn (Ed.), *Conflict in personal relationships* (pp. 163-18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urman, B., Margolin, G., & John, R.S.(1993). America's angriest home videos: Behavioral contingencies observed in home reenactments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28-39.
- Briere, J. (1987). Predicting self-reported likelihood of battering: Attitudes and childhood experiences.

-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61-69.
- Cahn, D.D. & Lloyd S.A.(1996). *Family violenc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Sage Publications, Inc.
- Dobash, E. & Dobash, R.(1978). Wives: The appropriate victims of marital violence. *Victimology*, 2, 426-442.
- Follingstad, D. (1990). Methodological issues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violence in relationships. In D. J. Besharov (Ed.), *Family violence: Research and public policy issues* (pp. 13-25). Washington, DC: AEI Press.
- Gelles, R. & Straus, (1988), *Intimate violence*. New York: Simon & Simon.
- Harris, M.B. (1993). How provoking! What makes men and women angry? *Aggressive Behavior*, 19(3), 199-211.
- Infante, D.A., Chandler, T.A., & Rudd, J.E. (1989). Test of an argumentative skill deficiency model of interspousal viol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86, 163-177
- Hilberman, E. (1980). The Wife-beat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36-1347.
- Infante, D.A., Chandler, T.A., & Rudd, J.E. (1989). Test of an argumentative skill deficiency model of interspousal viol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86, 163-177
- Lackey, C. & Williams C. (1995). Social bonding and the cessation of partner violence across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95-305.
- MacEwen K.E. & Barling J.(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
- Mason, A. & Blankenship, V. (1987). Power and affiliation motiv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03-210.
- Masi, D. A.(1981) *Organizing for women: Issues, strategies, services*. Lexington, Heath.
- Maynard, M.(1993). Violence towards women's in Richardson and Robinson. *Introducing women's studies*. Basingstoke: MacMillan.
- Martin, D.(1976). *Battered wives*. New York: Pocket Books.
- Power, T.G., McGrath, M.P., Hughes, S.O., & Manire, S.H. (1994).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 Young children's response to mothers versus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80-989.
- Schechteer(1982). *Women and male violence*. Boston: South & Press.
- Scott, P.(1974). Battered wi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433-441.
- Straus, M. (1978). Wife beating. *Victimology*, 2, 443-458.
- Stets, J.E. (1995). Control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73-685.
- Straus M.A.(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 II). *Journal of Family Issue*, 17(3), 283-316.
- Straus, M.A., & Sweet, S.(1992). Verbal / 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 Walker, L.(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